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영향요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 가 언\*\* · 전 혜 정\*\*\*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1세기 세계화와 국제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Park, 2015).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은 2021년 기준으로 134,285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1,956,781명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베트남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2). 이들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주체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인구집단으로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Yang, Song, & Im, 2009).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이라는 전환적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사회를 떠나 새로운 국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며(Kim, Kim, & Shin, 2007), 특히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배타적인

경향으로 인해 이들은 인종에 대한 차별과 사회문화적 편견을 경험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다른 이중 문화로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Lim, & Jeong, 2013).

결혼이주여성들은 보건의료환경이 취약한 국가 출신이 많고,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전에 임신, 분만, 산욕기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건강문제와 문화적응 문제,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 부족, 부부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우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Kim, 2013), 특히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Cha & Kim, 2008; Ha & Kim, 2013; Jo & Lim, 2019).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우울감 예측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전 참가로 인해 역사적 친숙성과 가부장적이고 유교적 문화가 비슷한 동남아시아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은 피부색을 지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또한, 베

\* 이 연구는 2022년도 부산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22교-20)

\*\* 동아대학교 간호학부 교수(<https://orcid.org/0000-0003-3891-1320>)

\*\*\*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https://orcid.org/0000-0001-7932-219X>) (교신저자 E-mail: junhj70@hanmail.net)

• Received: 1 November 2022 • Revised: 25 November 2022 • Accepted: 17 December 2022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ye Jung Jun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47228) 506, Jinnam-ro, Busanjin-gu, Busan, Korea

Tel: +82-51-850-3144, Fax: +82-51-850-3061, E-mail: junhj70@hanmail.net

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가난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이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코리안드림으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며(Sung, 2015), 이들은 타출신국 결혼이주여성보다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며(Jo & Lim, 2019) 자녀양육의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Kim, 2013).

기존 선행연구들은 연구 대상자를 대부분 다국적 여성을 동질 집단으로 보고 연구(Ha & Kim, 2013; Jo & Lim, 2019; Park, Yang, & Chee, 2015)가 진행되었거나, 특정 변인들을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Jo & Lim, 2019; Kim, 2012; Yang & Kim, 2007),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전체 우울감과 주요 관련 변수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인구 사회학적 요인, 부부간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부부갈등 등의 가족 관련 요인, 문화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중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 기획에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파악한다.
-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가족관계 특성, 문화적응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선정기준은 결혼이민(F-6 비자) 체류자격이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며, 제외기준은 남성과 미혼 여성이다.

본 연구대상의 선정과정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자료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인 17,381명 중 남성 3,228명, 사별, 이혼 및 별거 중인 1,603명을 제외한 12,250명이다. 그중 기타 비자를 가진 자와 결혼이민자인 사람(F-6 비자)들 중 베트남 출신이 아닌 자를 제외하면 베트남 출신 대상자는 2,764명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최종분석 대상자는 결측치가 있는 643명을 제외한 2,121명이다.

### 3. 연구 도구

#### 1) 우울감

우울감은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습니까?”라는 1문항에 대해 ‘그런적 없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느꼈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의 기준을 ‘그런적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다’로, 나머지 응답을 한 경우에는 ‘있다’로 하였다.

####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거주기간,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한국어 실력의 7문항이다. 연령은 25세 이하, 26-30세 이하, 31-35세 이하, 36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거주기간은 2년 미만, 2-6년 미만, 6-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눠 구분하며, 거주지역은 동과 읍·면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소득에 대한 질문으로 100만원 미만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지난 1년 동안 가지 못한 경험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있다, 없다로 이분형 범주로 범주화하였

다.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어려웠던 점에 대한 질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있다', '없다'로 이분형 변수로 범주화하였다. 한국어 실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능력을 각각 5점 척도로 측정된 뒤 4영역의 점수를 합하여 전체적인 한국어 실력으로 변수로 보았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으로 4-8점은 '하'로 한국어 실력이 낮음을 의미하고, 9-15점은 '중'으로 중간 정도의 실력이며, 16-20점은 '상'으로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을 의미한다.

### 3) 가족특성

가족특성에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간 문화적 차이의 5문항이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본 연구에서는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못한다'로 재분류하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은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과 2시간 이상은 '1시간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부부갈등은 지난 1년 동안 배우자와 다툰 경험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있다와 없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있었다', '없었다'로 분류하였다. 부부간 문화적 차이는 지난 1년동안 배우자와 살면서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전혀 느낀적이 없다'에서 '매우 자주 느꼈다'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느낀적이 없다는 '없다', 그 외는 '있다'로 이분형 변수로 범주화하였다.

### 4) 문화적 특성

문화적 특성은 사회적 차별경험,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 논의자,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와 종교 활동모임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차별경험은 6개 문항으로 거리나 동네, 상점이나 음식점, 은행, 공공기관, 직장,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 집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는 '매우 자주 차별을 받았다'에서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의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는 '있다',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없다'로 이분형 변수로 범주화하였다.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는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매우 만족한다'에서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는 '만족한다', 보통이라는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만족하지 못한다'로 재분류하였다.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을 논의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국인이나 한국인, 기타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있다'로 없는 경우에는 '없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다. 모국인 친구 모임은 지난 1년 동안 모국인 친구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것으로 '있다'와 '없다'로 이분형 변수로 범주화하였다.

## 4.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8년 공표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및 정책수립을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2009년 첫 실태조사를 시작하며 3년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통계청이 수행하였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일반적 사항,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와 기타 일반사항에 대한 영역으로 2018년 8월 9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실시되었고, 통계청 전문조사원의 가정방문에 의한 면접조사와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결혼이민자,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2009년 가족 전수조사로 시작하여, 2012년부터 표본조사로 시행되었다.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다문화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구 및 가구원이며, 조사모집단은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기타 이민자, 인지 또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인 다문화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구와 가구원이다.

표본추출은 1단계에서는 집락계통추출로 1,045개 읍면동을 추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층화계통추출로 동/읍면 및 14개 국적층의 56개 층에 대해 25,053 가구의 다문화 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표본추출 틀은 2017년 인구 총조사 자료의 모집단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목표 유효 표본 규모는 16,000가구로 층별 모집단 규모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배분하여 최종 표본 규모를 결정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표본가구 25,053가구 중 70.1%인 17,550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전체 표본가구 중 68.1%인 17,073명, 배우자는 59.9%인 15,016명을 조사를 완료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고유번호로 되어 있어 식별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으며 익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되어 대상자에게 해가 가지 않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P01-202108-22-020) 승인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

###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표본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족특성 및 문화적응 특성은 빈도 및 가중치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하였다.
- 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복합표본 분석방법인 Rao-Scott  $\chi^2$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족 및 문화적응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21 \pm 5.43$ 세로 26~30세가

37.4%(794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7.69 \pm 3.81$ 년으로 6~10년 미만이 45.8%(971명)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도시거주가 59.9%(1,271명)로 더 많았고,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은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34.5%(731명),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 29.4%(623명), 400만원 이상이 21.0%(446명), 200만원 미만이 15.1%(321명) 순이었다.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91.5%(1,940명),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82.4%(1,748명)였다. 한국어 실력은 5점 만점에 평균  $1.18 \pm 0.38$ 점이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1.26 \pm 0.51$ 점,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1.34 \pm 0.57$ 점, 부부간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이상이 58.1%(1,233명)이었다. 부부갈등이 있는 경우가 67.2%(1,426명)로,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경우가 71.8%(1,522명)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가 66.6%(1,413명)이었고, 한국에서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1.38 \pm 0.57$ 점,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자가 있는 경우가 67.6%(1,433명), 모국인 친구모임이 있는 경우가 67.7%(1,436명)로 나타났다. 우울감은 4점 만점에 평균  $1.34 \pm 0.61$ 점이었다(Table 1).

###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족 및 문화적응 특성에 따른 우울감 차이

우울감은 연령( $\chi^2=15.48$ ,  $p<.001$ ), 거주기간( $\chi^2=84.69$ ,  $p<.001$ ), 거주 지역( $t=4.63$ ,  $p=.031$ ), 월평균 가구소득( $\chi^2=129.74$ ,  $p<.001$ ),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 $t=852.06$ ,  $p<.001$ ), 한국생활의 어려움( $t=1477.61$ ,  $p<.001$ ), 한국어 실력( $\chi^2=86.24$ ,  $p<.001$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chi^2=1382.77$ ,  $p<.001$ ),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chi^2=1148.84$ ,  $p<.001$ ), 부부간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t=175.55$ ,  $p<.001$ ), 부부갈등( $t=1008.41$ ,  $p<.001$ ), 부부간 문화적 차이( $t=874.04$ ,  $p<.001$ ), 사회적 차별경험( $t=764.03$ ,  $p<.001$ ), 생활만족도( $\chi^2=2719.01$ ,  $p<.001$ ),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자가 있는 자( $t=20.89$ ,  $p<.001$ ),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 $t=29.74$ ,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21)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n	(weighted n)	(%)	Mean±SE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year)	≤25	384	(9,972)	(18.1)	30.21±5.43
		26-30	794	(16,960)	(37.4)	
		31-35	646	(11,312)	(30.5)	
		≥36	297	(5,502)	(14.0)	
	Period of residency in Korea(year)	<2	103	(2,607)	(4.9)	7.69±3.81
		2-6	529	(13,624)	(24.9)	
		6-10	971	(19,286)	(45.8)	
	Residence	≥10	518	(8,229)	(24.4)	
		Urban area	1,271	(27,012)	(59.9)	
		Rural area	850	(16,734)	(40.1)	
	Monthly family income(10,000 won)	<200	321	(6,893)	(15.1)	
		200-300	731	(15,570)	(34.5)	
		300-400	623	(12,375)	(29.4)	
		≥400	446	(8,908)	(21.0)	
Difficulties with using medical care	Yes	181	(3,851)	(8.5)		
	No	1,940	(39,895)	(91.5)		
Difficulty with life in Korea	Yes	1,748	(36,518)	(82.4)		
	No	373	(7,228)	(17.6)		
Korean language ability	Good	925	(17,707)	(43.6)	1.18±0.38	
	Moderate	911	(19,377)	(43.0)		
	Poor	285	(6,662)	(13.4)		
Family factors	Satisfaction with spouse	Satisfied	1,633	(34,397)	(77.0)	1.26±0.51
		Moderate	422	(8,120)	(19.9)	
		Not satisfied	66	(1,229)	(3.1)	
	Satisfaction with parents-in-law	Satisfied	1,506	(31,223)	(71.0)	1.34±0.57
		Moderate	505	(10,304)	(23.8)	
		Not satisfied	110	(2,219)	(5.2)	
Conversation time (spouse)	Less than 1 hours	888	(17,958)	(41.9)		
	More than 1 hours	1,233	(25,788)	(58.1)		
Marital conflict	Yes	1,426	(28,878)	(67.2)		
	No	695	(14,868)	(32.8)		
Cultural differences	Yes	1,522	(31,977)	(71.8)		
	No	599	(11,769)	(28.2)		
Acculturation factors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Yes	708	(14,596)	(33.4)	
		No	1,413	(29,150)	(66.6)	
	Life satisfaction	Satisfied	1,409	(29,344)	(66.4)	1.38±0.57
		Moderate	619	(12,612)	(29.2)	
		Not satisfied	93	(1,790)	(4.4)	
	Someone to talk about matters	Yes	1,433	(29,295)	(67.6)	
		No	688	(14,451)	(32.4)	
	Meeting with homeland friend	Yes	1,436	(29,479)	(67.7)	
		No	685	(14,267)	(32.3)	
	Depression	Yes	588	(12,156)	(27.7)	1.34±0.61
No		1,533	(31,590)	(72.3)		

SE=Standard error.

Table 2. Differences in depression of subjects (N=43,746)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Depression		Rao-Scott $\chi^2(p)$
			Yes n(weighted n)(%)	No n(weighted n)(%)	
Age (year)	≤25		105 (2,922) (29.3)	279 (7,050) (70.7)	15.48(<.001)
	26-30		218 (4,607) (27.2)	576 (12,353) (72.8)	
	31-35		179 (3,101) (27.4)	467 (8,211) (72.6)	
	≥36		86 (1,526) (27.7)	211 (3,976) (72.3)	
Period of residency in Korea (year)	<2		32 (869) (33.3)	71 (1,738) (66.7)	84.69(<.001)
	2-6		137 (3,464) (25.4)	392 (10,160) (74.6)	
	6-10		269 (5,441) (28.2)	702 (13,845) (71.8)	
	≥10		150 (2,382) (28.9)	368 (5,847) (71.1)	
Residence	Urban area		353 (7,408) (27.4)	918 (19,604) (72.6)	4.63(.031)
	Rural area		235 (4,748) (28.4)	615 (11,986) (71.6)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200		104 (2,120) (30.8)	217 (4,773) (69.2)	129.74(<.001)
	200-300		215 (4,629) (29.7)	516 (10,941) (70.3)	
	300-400		151 (3,042) (24.6)	472 (9,333) (75.4)	
	≥400		118 (2,365) (26.5)	328 (6,543) (73.5)	
Difficulties with using medical care	Yes		15 (1,845) (47.9)	35 (2,006) (52.1)	852.06(<.001)
	No		573 (10,311) (25.8)	1498 (29,584) (74.2)	
Difficulty with life in Korea	Yes		552 (11,486) (31.5)	1196 (25,032) (68.5)	1477.61(<.001)
	No		36 (671) (9.3)	337 (6,557) (90.7)	
Korean language ability	Good		241 (4,533) (25.6)	684 (13,174) (74.4)	86.24(<.001)
	Moderate		269 (5,796) (29.9)	642 (13,581) (70.1)	
	Poor		78 (1,827) (27.4)	207 (4,835) (72.6)	

(N=43,746)

Table 2. Differences in depression of subjects (Continued)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Depression						Rao-Scott $\chi^2(p)$
			Yes			No			
			n	(weighted n)	(%)	n	(weighted n)	(%)	
Family factors	Satisfaction with spouse	Satisfied	381	(8,176)	(23.8)	1252	(26,221)	(76.2)	1382.77(<.001)
		Moderate	168	(3,320)	(40.9)	254	(4,800)	(59.1)	
		Not satisfied	39	(660)	(53.7)	27	(569)	(46.3)	
	Satisfaction with parents-in-law	Satisfied	352	(7,281)	(23.3)	1154	(23,942)	(76.7)	1148.84(<.001)
		Moderate	186	(3,859)	(37.5)	319	(6,445)	(62.5)	
		Not satisfied	50	(1,016)	(45.8)	60	(1,203)	(54.2)	
	Conversation time (spouse)	Less than 1 hours	282	(5,601)	(31.2)	606	(12,357)	(68.8)	175.55(<.001)
		More than 1 hours	306	(6,555)	(25.4)	927	(19,233)	(74.6)	
		Marital conflict	Yes	461	(9,434)	(32.7)	965	(19,444)	
No	127	(2,722)	(18.3)	568	(12,146)	(81.7)			
Cultural differences	Yes	481	(10,114)	(31.6)	1041	(21,863)	(68.4)	874.04(<.001)	
	No	107	(2,042)	(17.4)	492	(9,727)	(82.6)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Yes	258	(5,277)	(36.2)	450	(9,319)	(63.8)	764.03(<.001)	
	No	330	(6,879)	(23.6)	1083	(22,271)	(76.4)		
Life satisfaction	Satisfied	291	(6,228)	(21.2)	1118	(23,116)	(78.8)	2719.01(<.001)	
	Moderate	234	(4,688)	(37.2)	385	(7,924)	(62.8)		
	Not satisfied	63	(1,240)	(69.3)	30	(550)	(30.7)		
Someone to talk about matters	Yes	382	(7,939)	(27.1)	1051	(21,356)	(72.9)	20.89(<.001)	
	No	206	(4,217)	(29.2)	482	(10,234)	(70.8)		
	Meeting with homeland friend	Yes	389	(7,952)	(27.0)	1047	(21,527)		(73.0)
No	199	(4,204)	(29.5)	486	(10,063)	(70.5)			

### 3. 대상자의 우울감 영향요인

대상자의 우울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영향요인은 연령, 거주기간,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과 한국생활의 어려움, 한국어 실력, 배우자 관계만족도, 배우자 부모 관계만족도, 부부갈등, 부부간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별경험, 생활만족도, 모국인 친구모임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거주에 비해 농촌에 거주할수록 우울 경험이 1.09배(95% Confidence interval, [CI]:1.04~1.15),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1.64배(95% CI:1.52~1.76),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3.02배(95% CI:2.76~3.29), 한국어 실력은 '상'에 비해 '중'이 1.20배(95% CI:1.12~1.29), '하'가 1.19배(95% CI:1.11~1.28)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배우자 관계에서 만족하는 군에 비해 보통은 1.38배(95% CI:1.29~1.47), 불만족이 1.37배(95% CI:1.19~1.57),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만족에 비해 보통이 1.27배(95% CI:1.19~1.35), 불만족이 1.28배(95% CI:1.15~1.42), 부부갈등이 없음에 비해 있음이 1.40배(95% CI:1.33~1.48),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없음에 비해 있음이 1.33배(95% CI:1.25~1.42)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사회적 차별 경험은 없음에 비해 있음이 1.31배(95% CI:1.25~1.38), 생활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보통인 경우 1.66배(95% CI:1.57~1.74), 불만족인 경우 5.11배(95% CI:4.56~5.74), 모국인 친구 모임이 있음에 비해 없음이 1.15배(95% CI:1.10~1.21)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x & Snell R<sup>2</sup>은 .117이었고, Nagelkerke R<sup>2</sup>은 .169였다 (Table 3).

## IV. 논 의

본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파악하고 우울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영향요인들은 다문화 시대에 결혼이주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신건강 관련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27.7%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인 성인 여성의 우울감 경험이 12.5%로 나타난 연구결과(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9)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우울 발생은 24.7%로, 자국민에 비해 1.42배 우울 발생 위험이 높았다(Aichberger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주는 현재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상실이나 개인적 네트워크 약화를 초래하면서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화적 정체성이 높은 베트남 이주여성의 경우 정신건강에 더욱 불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들에 대한 우울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지원과 정신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감 영향요인은 연령, 거주기간,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과 한국생활의 어려움, 한국어 실력, 배우자 관계만족도, 배우자 부모 관계 만족도, 부부갈등, 부부간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별경험, 생활만족도, 모국인 친구모임으로 확인되었다. 농촌에 거주할수록,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이 있을수록,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배우자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할수록,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할수록, 부부갈등이 있을수록,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있을수록,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불만족스러울수록, 모국인 친구 모임이 없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거주지역이 도시에 비해 시골에 거주할수록 우울감이 1.0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Kim, 2019; Youn & Lee, 2010)와 일치하였다.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농사일과 가사 일을 병행하며 도시 이주여성과 달리 힘



(N=43,746)

Factor	Variables (Reference)	Categories	B	SE	Wald	Depression		
						OR	95% CI	p
Sociodemographic factors	Age(≤25)	26-30	-0.14	0.03	17.93	0.87	0.81~0.93	<.001
		31-35	-0.27	0.04	47.01	0.76	0.70~0.82	<.001
		≥36	-0.38	0.05	66.30	0.68	0.62~0.75	<.001
	Period of residency in Korea (<2 year)	2-6	-0.51	0.05	105.68	0.60	0.55~0.66	<.001
		6-10	-0.31	0.05	35.81	0.73	0.67~0.81	<.001
		≥10	-0.29	0.06	22.50	0.75	0.67~0.85	<.001
Family factors	Residence (Urban)	Rural area	0.09	0.02	14.16	1.09	1.04~1.15	<.001
	Monthly family income (<200 (10,000 won)	200-300	0.04	0.03	1.33	1.40	0.97~1.11	.250
		300-400	-0.16	0.04	19.14	0.85	0.80~0.92	<.001
		≥400	-0.17	0.04	18.95	0.85	0.80~0.91	<.001
	Difficulties with using medical care (No)	Yes	0.49	0.04	171.81	1.64	1.52~1.76	<.001
	Difficulty with life in Korea (No)	Yes	1.10	0.05	600.20	3.02	2.76~3.29	<.001
Acculturation factors	Korean language ability (Good)	Moderate	0.18	0.03	28.68	1.20	1.12~1.29	<.001
		Bad	0.17	0.04	22.45	1.19	1.11~1.28	<.001
	Satisfaction with spouse (Satisfied)	Moderate	0.32	0.03	89.21	1.38	1.29~1.47	<.001
		Not satisfied	0.31	0.07	20.18	1.37	1.19~1.57	<.001
	Satisfaction with parents-in-law (Satisfied)	Moderate	0.24	0.03	58.89	1.27	1.19~1.35	<.001
		Not satisfied	0.25	0.05	20.69	1.28	1.15~1.42	<.001
Conversation time with spouse (More than 1 hours)	Less than 1 hours	0.04	0.03	2.97	1.04	0.99~1.10	.085	
Meeting with homeland friend (Yes)	Marital conflict (No)	Yes	0.34	0.03	149.56	1.40	1.33~1.48	<.001
		Yes	0.29	0.03	83.55	1.33	1.25~1.42	<.001
	Cultural differences with spouse (No)	Yes	0.27	0.02	121.68	1.31	1.25~1.38	<.001
		Yes	0.50	0.03	365.36	1.66	1.57~1.74	<.001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No)	Moderate	1.63	0.06	773.79	5.11	4.56~5.74	<.001
		Not satisfied	0.03	0.03	1.31	1.03	0.98~1.08	.252
Someone to talk about matters (Yes)	No	0.14	0.03	30.68	1.15	1.10~1.21	<.001	

Hosmer & Lemeshow's:  $\chi^2(p)=11.48(.176)$ ; Cox & Snell  $R^2=.117$ ; Nagelkerke  $R^2=.169$

SE=standard errors;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쉽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의 미흡함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따라서 농촌 거주 이주여성의 우울에 대한 중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우울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우울감이 1.6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충족 의료경험으로 나타난 연구결과(Chae, Kim, Asami, & Kim, 2019)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없음에 비해 있을수록 우울감이 3.0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Cho & Yoo, 2017)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후 한국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대부분 1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동시에 한국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우울감이 높아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생활 적응단계부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의 연계를 통해 사회 참여 및 적응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한국어 실력이 좋음에 비해 보통은 1.20배, 나쁨이 1.19배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Jeon과 Lee (2015)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소통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대상자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및 증진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가족특성 중 배우자의 관계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보통이 1.38배, 만족하지 못할수록 1.37배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이는 남편과의 관계가 나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Jeon, 2017)와 유사하다. 자국민 여성들과 달리 결혼이주여성들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사회활동 부재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부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만족함에 비해 보통인 경우 1.27배, 만족하지 못할수록 1.28배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갈등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Cho & Yoo, 2017)와 유사하다. 이는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주여성에게 시부모와의 갈등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갈등이 없음에 비해 있을수록,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없음에 비해 있을수록 각각 1.40배, 1.33배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갈등이 있을수록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있을수록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Cho & Yoo, 2017)와 유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가부장적이고 한국적인 방식을 요구하는 시부모나 부부간의 의견 대립, 양육갈등 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된다(Kim, 2006). 대인관계에서는 생각, 믿음, 환경 등이 유사하다고 인식할때 친밀감이 높아지고, 다르다고 인식할수록 친밀감이 감소한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클수록 부부간의 친밀감이 낮아져 불만족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이주 여성의 적응프로그램에는 한국의 일상생활 적응과 관련된 언어와 음식 등의 내용만을 다루고 주로 있으며 결혼생활을 향상시키는 내용은 전무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부갈등이나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부 맞춤형 문화 체험프로그램 제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특성 중 대상자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없음에 비해 있을수록 1.31배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경험이 있거나 차별빈도가 많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Na & Kim, 2017)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차별금지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생활만족도가 좋음에 비해 보통이 1.66배, 불만족할수록 5.11배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Cho & Yoo, 2017)와 유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생활의 부적응은 불안과 우울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로 정신건강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모국인 친구 모임이 있음에 비해 없을수록 1.15배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이는 모국인 친구 수가 적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Jeon & Lee,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해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에 이주하여 새로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결혼이주여성이 이주국의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민 단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보 및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하였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Cho & Yoo,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나(Kim, 2016)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연령이 이주여성들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반복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우울감이 감소하였다. 이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Byun, 2011; Park et al.,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초기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적응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우울이나 정신건강에 더 취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과 모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비롯한 생활의 차이에 적응하게 된다(Yang & Kim, 2007).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거주기간 별로 집단을 나누어 수준별 정신건강교육 및 적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하에 비해 300만원 이상일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Park et al., 2015)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대상자의 월평균 수입과 우울감의 정도는 국제결혼을 한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신이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국에서의 경제적 상황은 우울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소득수준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이주 초기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지원 정책수립은 건강형평성 제고 및 향후 질병 부담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정신건강 영향요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통한 자료로 기존의 원시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는 분석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변수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써 결과의 인과관계 해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여 우울감의 강도나 빈도 등을 반영하기에는 불충분한 도구로 모든 상황에 우울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가족관련 및 문화적응 특성과의 관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27.7%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농촌에 거주할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만족하지 못할수록, 부부갈등이 있을수록,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있을수록, 사회적 차별경험이 있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모국인 친구모임이 없을수록,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이 있을수록,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중 우울정도가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우울을 줄일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며,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의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련 및 문화적 특성이 우울감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형성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우울 상담 및 정신건강유지, 증진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References

- Aichberger, M. C., Schouler-Ocak, M., Mundt, A., Busch, M. A., Nickels, E., Heimann, H. M., Ströhle, A., Reischies, F. M., Heinz, A., & Rapp, M. A. (2010). Depression in middle-aged and older first generation migrants in Europe: Results from th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European Psychiatry, 25*(8), 468-475.  
<http://doi.org/10.1016/j.eurpsy.2009.11.009>
- Byun, S. W. (2011). Research on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Trend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6*(2), 69-77.  
<https://doi.org/10.22715/JKARHN.2011.6.2.069>
- Cha, S. E., & Kim, D. S. (2008). The effect of social roles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Focused on the difference among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 131-157.
- Chae, D., Kim, J., Asami, K., & Kim, J. (2019).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elf-rated health of migrant work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6*(3), 37-50.  
<https://doi.org/10.14367/kjhep.2019.36.3.37>
- Cho, W., & Yoo, S. (2017). Depressive stress related symptoms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Focused on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4*(1), 47-65.  
<https://doi.org/10.14367/kjhep.2017.34.1.47>
- Ha, J. Y., & Kim, Y. J. (2013).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4), 254-264.  
<https://doi.org/10.4069/kjwhn.2013.19.4.254>
- Jeon, G. S. (2017). Correlates of depres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6*(4), 402-411.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4.402>
- Jeon, H. J., & Lee, G. E. (2015).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of Vietnamese immigrant work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6*(4), 380-389.  
<https://doi.org/10.12799/jkachn.2015.26.4.380>
- Jo, H. K., & Lim, H. S. (2019).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married immigrant women's self-esteem, depression,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 456-467.  
<https://doi.org/10.5762/KAIS.2019.20.12.456>
- Kim, D. H., Kim, S. Y., & Shin, H. J. (2007). The study on impact of spous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foreign wives' parenting stress in rural areas. *Family and Culture, 19*(3), 53-78.
- Kim, H. (2016). Exploring the health of female spous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mining the differences by their country of origi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3), 252-261.  
<https://doi.org/10.5762/KAIS.2016.17.3.252>
- Kim, H. J. (2007). Cross-border marriages between Vietnamese women and Korean

- men: The reality and problems (A view from Vietnam). *East Asian Studies*, 52, 219-254.  
<https://doi.org/10.33334/sieas.2007..52.219>
- Kim, H. J. (2019).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among foreign spouses based on their resident area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Journal of the Future of Society*, 10(1), 13-28.  
<https://doi.org/10.22987/jifso.2019.10.1.13>
- Kim, H. S. (2012). Impacts of acculturation &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Health and Social Science*, 32, 39-70.
- Kim, O. N. (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Family and culture*, 18(3), 63-106.
- Kim, S. O., Lim, H. S., & Jeong, G. C. (2013). Effects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1), 221-235.  
<https://doi.org/10.5392/JKCA.2013.13.11.221>
- Kim, T. W. (2013). The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the conflicts between values of Vietnamese female marriage migrants. *Multicultural Studies*, 2(1), 53-76.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9). *Korea national statistics 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I-1)*. Retrieved December 10, 2022, from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4/sub04\\_04\\_01.do](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4/sub04_04_01.do)
-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2, November).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marriage*. Retrieved November 22, 2022,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5A&vw\\_cd=MT\\_ZTITLE&list\\_id=A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5A&vw_cd=MT_ZTITLE&list_id=A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 Na, J., & Kim, H. (2017).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on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spouse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485-496.  
<https://doi.org/10.14400/JDC.2017.15.11.485>
- Park, H. S. (2015). The effect of married migrant women's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on their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3), 359-370.  
<https://dx.doi.org/10.5934/kjhe.2015.24.3.359>
- Park, M. H., Yang, S. J., & Chee, Y. K. (2015). Effects of multiple stress factors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2), 298-311.  
<https://doi.org/10.5932/JKPHN.2015.29.2.298>
- Sung, J. H. (2015). Research on preparation for later life of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Vietnam married immigrant women in Daegu area. *The Women's Studies*, 88(1), 83-115.
- Yang, O. K., & Kim, Y. S.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6, 79-110.
- Yang, O. K., Song, M. K., & Im, S. W. (2009).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of internationally-married female migrants in Seou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137-168.
- Youn, H., & Lee, Y. H. (2010). Mental health of Vietnamese migrant wives married to Koreans: Focus on urban-rural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3), 659-684.  
<https://doi.org/10.15842/kjcp.2010.29.3.002>

##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Using Data from the 2018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Lee, Ga Eon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ong-A University)

Jun, Hye J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Methods:** This study was a retrospective review of the dataset from the Korean 2018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Rao-Scott  $\chi^2$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using complex samples analysis. **Results:** The proportion of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subjects in Korea who experienced depression was 27.7%.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were age, length of stay in Korea, living area, economic status, difficulties in using medical care, difficulties faced during their stay in Korea and Korean language skills relationship with spouse and parents-in-law marital conflicts, cultural differences, their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life satisfaction, and meeting with friends from their homeland. **Conclusi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revention of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could be aided by acculturation programs that deal with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s and social supports.

**Key words :** Depression; Migrants; Accultura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usan Women's College Research Grant of 2022년-20